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18년만에 종결

(익산)

대법원, 진범 김모(37)씨에 징역 15년 원심 확정... 최초 목격자 최모씨 재심 청구해 무죄 확정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김모(37)씨에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하면서 사건 발생 18년 만에 종결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께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세)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2016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가 아닌 최초 목격자인 최

모(당시 15세)씨가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2010년 만기 출소했다.

경찰은 최씨가 택시 앞을 지나가다가 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어 오토바이 공구함에 있던 흉기로 유씨를 살해했다고 발표했으나 최씨가 사건 당시 입은 옷과 신발에는 어떤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2003년 3월 이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듣고 용의자로 지목된 김씨를 긴급체포해 범행을 자백받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미 범인이 검거돼 복역

중이라는 이유로 이를 기각시켰다.

풀려난 김씨는 자신의 부모에게 충격을 줄 목적으로 허위자백을 했으며 진술을 번복했고, 검찰은 구체적인 물증이 없으며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 뒤 최씨가 "경찰의 폭행과 감압으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해 2016년 11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재심 선고 후 검찰은 당시 용의자로 지목됐었던 김씨를 체포해 구속기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1심과 2심은 모두 김씨의 강도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김씨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대상을 물색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고 그 방법이 잔인하다"며 "강도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불우한 가정환경과 경제적 곤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아니었다"며 "범행 당시 19세의 소년이었고 사리분별력이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상민 기자

전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안전 심의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

전주시가 경찰, 교육기관, 청소년 시설 등과 연계해 위기청소년들의 건강 한 성장을 돕는다.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7일 전주시청 5층 영상회의실에서 전주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상반기 운영위원회를 열었다.

전주시 CIS-Net 운영위원회는 CIS-Net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주시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비롯해 고용센터와 교육지원청, 경찰서, 청소년 시설 등 필수 연계기관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장 등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예비 등 실비 지급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및 선도 대상 청소년 선정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 △필수 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등 협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CYS-Net 운영위원회 위원 등 18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2018년 CIS-Net 중점사업계획 보고에 이어 전주시청소년특별지원사업 대상 청소년 선정 심의와 필수 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회의가 진행됐다.

특히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의 경우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와 학업지원비 등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해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지원대상이다. /채규남 기자

'나 데리고 사는 법'

전주시 열린시민강좌 개최

전주시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잊어버린 '나' 자신에 대해 되돌아보고 스스로의 삶에 대해 질문해 보는 시간을 제공했다.

제17회 전주시 열린시민강좌가 27일 500여 명의 시민들이 시청 강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열렸다.

이번 초청강의에는 김미경 강사가 초청돼 '나 데리고 사는 법'을 주제로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힘에 대해 심도 있는 강연을 펼쳤다.

김 강사는 하소연이나 투정, 기쁨과 슬픔, 부모님과 자녀에 대한 고민, 그 밖에 살면서 누구나 맞닥뜨리게 되는 크고 작은 질문들을 자신의 삶을 바탕으로 진솔하게 들려주며 참석한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김 강사는 "매일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오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기쁨이라며 "오늘 하루를 충실히 보내는 하루실력을 키우는 방법과 나이가 들수록 더 건강하게 몸과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살다보면 누구나 마주하는 소소한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들여다보고 자신을 위한 답을 찾아내는 것이 인생미(美)답이며 자존감이 생명의 지지대"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열린시민강좌에서는 문화공연으로 서신동 주민센터의 방송댄스 공연이 펼쳐졌으며 강좌 후 토크 시간에는 오션진 MC(임음방송)의 진행으로 강사와 수강생과의 토크(talk talk) 소통의 시간이 이어졌다.

다음 강좌는 오는 4월 10일 엄기호 인권활동가의 '재건을 위한 성찰'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채규남 기자



제17회 전주시 열린시민강좌가 27일 500여 명의 시민들이 시청 강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열렸다. 이번 초청강의에는 김미경 강사가 초청돼 '나 데리고 사는 법'을 주제로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힘에 대해 심도 있는 강연을 펼쳤다.

완산구, 법인지방소득세 4월까지 신고·납부해야

전주시 완산구는 2017년 귀속 사업 연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법인의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도모하기 위해 신고납부 시 유의사항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한 안내문을 지난 23일 완산구에 본점을 두고 있는 2,243개 법인에게 일괄 발송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과세표

준 및 세액신고서」를 자치단체마다 제출해야 하고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 사업장의 소재지에 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을 안분비율로 신고해야만 한다.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한 곳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채규남 기자

국민연금공단 직원들도 전주푸드 먹는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국민연금공단과 지역상생 발전 MOU체결

전주 혁신도시 이전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전주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전주푸드 활성화에 동참한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28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성주 이사장, 강성욱 센터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연금공단과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힘

과 농가들의 교류가 활성화되어 바른 먹거리체계 구축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전주푸드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지난 2015년도에 전주 농업과 경제를 살리고 시민들의 안전한 밥상을 책임지기 위한 취지로 설립됐으며 그동안 전주 지역 1400여 농가와 지역 먹거리 혁신을 위해 노력해 왔다. /채규남 기자

과 농가들의 교류가 활성화되어 바른 먹거리체계 구축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전주푸드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지난 2015년도에 전주 농업과 경제를 살리고 시민들의 안전한 밥상을 책임지기 위한 취지로 설립됐으며 그동안 전주 지역 1400여 농가와 지역 먹거리 혁신을 위해 노력해 왔다. /채규남 기자

산후우울증 30대 여성 극단적 선택

27일 오후 3시 30분경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과 생후 7개월 된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A(30·여)씨는 집 안에서 목 맨 채 숨져 있었고, 딸 B양은 이불에 덮여 숨을 거둔 상태였다.

A씨는 산후우울증을 앓아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에 비춰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상민 기자

만취한 60대 익산 편의점에서 강도질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는 종업원을 위협해 돈을 훔치려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27일 특수감도미수 혐의로 김모(6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1시18분께 익산시 남중동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 A(37,여)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훔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씨가 신고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현재 김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여성 종업원이 혼자 있을 때를 노린 것 같다"며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상민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